

104회기 총회 실행위원 및 산하기관장 정책수련회

5월 총회 석상 위임된
안건처리

제104회기를 맞이하여 총회 첫 실행위원회와 기관장 정책수련회가 6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됐다. “성령의 권능을 힘 입어”(행 1:8)라는 주제로 4박 5일 동안 진행된 이번 정책수련회에는 총회 임원 및 실행위원, 기관장들을 포함하여 부부 동반으로 60여 명이 참여했다.

첫째날 오후 현지 도착 후 둘째날 오전에 드려진 개회예배는 총부 권순달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총회장 이광설 장모의 기도와 회의록서기 허상범 목사의 성경봉독 후 총회장 홍사진 목사가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직전 총회장 김만수 목사가 축도를 맡았다. 예배를 마친 후 진행된 실행위원회에서는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성장학재단 설립의 건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앞서 지난 임원회의에서는 총회석상에 서 재기되었던 재단법인 예성우성장학재단 설립의 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임원회의에서는 이를 위해 부총



회장 이종만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4인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운영이나 설립과정 재정집행은 현장과 정관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2인의 세무사가 정기적인 회계관리를 하고 있음도 보고했다. 다만 이사파송에 있어서 교단 교직원 3명의 이사는 자체 임명이 아닌 총회 임원회의에서 파송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하였다.

▲호남전도지방회 설립의 건이 다뤄졌다. 지난해 총회 임원회의를 통해 청원된 내용으로 월송성결교회를 비롯한 10개 교회가 새롭게 전도지방회를 조직하고 이를 청원한 내용이다. 당시 임원회는 조건부 승인을 하고 이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었다.

▲유지재단 이사 인준의 건이 다뤄져 류제곤 목사를 인준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의 이사 및 감사는 자기 실행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은급재단 이사 인준의 건이 다뤄져 조인인 김준겸 장모(신원동)를 재임기로 하고 이를 인준하였다. ▲총회 본부 감사인준의 건도 다뤄졌다. 임기가 만료된 전임자들의 뒤를 이어 이종섭 목사와 이천 장모를 신임감사로 인준하였다. ▲집행부서 인준의 건이 다뤄져 임원회의의 추천대로 인준하기로 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목사고시위원회: 강명국 김영택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석진성 김순홍 김정호 임복용 목사.

△선거관리위원회: 곽종원 김상혁 송영만 심상훈 조기현 한은기 목사. 김준겸 김준호 박수종 이 천 이장호 장모.

△총회재판위원회: 김명수 손형모 서영원 이명화 목사, 박정식 최옥창 황제돈 장모.

한편 이후 일정은 마닐라 시내 등을 오가며 현지 문화탐방 등의 순서를 이어나갔다.

성결의 복음 들고 한국성결교회연합회 16기 출범

대표회장엔 홍사진 목사… ‘성결’ 이름으로 연합 다짐

우리교단을 비롯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안성우 목사·이하 기성)와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감독 최형영 목사·이하 나성)로 구성된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제16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원 선출과 함께 성결성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6일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개최된 이날 총회는 본 교단을 비

롯한 기성과 나성의 목회자 및 관계자 1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회예배와 임원선출, 안건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신 임원 선출은 3개 교단의 교단장이 순번제로 대표회장을 맡는 회칙에 따라 이번 16기 한성연의 대표회장은 본교단 총회장 홍사진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다. 공동회장에는 기성 총회장 안성우 목사와 나성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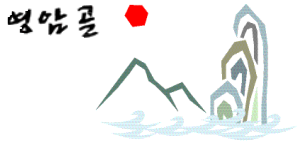
최형영 목사를 선임하고 공동부회장 6인(각 교단 부총회장), 서기, 협동서기, 회계, 공동회계, 자문위원 등으로 임원진도 새롭게 구성했다.

이날 대표회장엔 선출된 홍사진 목사는 “기성, 나성, 예성이 끈끈하게 ‘연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라며 “특별히 세 교단이 힘을 모아 올해 ‘다음세대 연합캠프’를 준비



중이다. 이 시대의 소망인 다음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관련 사역에 박차

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2면에 계속



6월은 장미의 시간

6월의 숲은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이 짙어간다. 풀과 나무는 기운차게 쪽쪽 땀을 완속미가 더해 지는데, 아직은 그대로 굳지 않아 정겹다. 무엇 이든지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다. 그리고 거 기에는 장미 익는 냄새가 진동한다. 온난화 현상 때문에 성미 급한 녀석은 5월이면 벌써 고개를 쳐들고 나와 제 자랑을 하지만, 장미는 역시 6월 장미가 백미다. 숲속뿐 아니라 아파트 담벼락, 초등학교 가는 길모퉁이, 크고 작은 화단, 바람 부는 해안도로에도 장미가 널려 있다.

장미는 유혹의 꽃인가? 특히 빨간 장미는 더욱 그러하다. 꽃말도 열렬한 사랑을 뜻하는 것을 보 면 확실히 그렇다. 빨간 장미는 유혹의 꽃으로 사랑을 고백할 때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그것은 열정을 뜻한다.

시인 황금찬은 장미의 계절 “6월은 유혹의 달 이다. 계절의 신부가 새 단장을 하고 조용히 서 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달”이라 했다. 누 군가를,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일은 가슴 설레는 일이다.

6월도 벌써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바 라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카 오스(chaos) 세상에서 의기소철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며,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 는(암 52:4) 평온한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 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살길이 열리는데(암 56) 세 상, 교회들이 활기를 되찾고 사역자들이 장미꽃 에 담긴 열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6월의 숲속을 한번 다녀오자. 짙어가는 푸르름 속에 종영 나를 던지자. 아득한 장미 향기가 있 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리프레시(Refresh)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 아날 것이고, 열정도 되찾을 것이다.

어느 공원에서 장미 축제가 시작되었다는 광 고가 뜬다. 그 공원이 아니라도 이때쯤 길모퉁이 를 돌아서기만 해도 장미 향기가 코앞에 있다. 바라보기만 해도 왠지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 않은가?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면 더 좋 겠다.

새벽이슬이 맺혀있는 붉은 장미 꽃잎... 생각 만 해도 리프레시가 절로 되는듯하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워 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해.” (이혜인-6월의 장미)

清水 ehc3s@hammail.net

창신교회 아름다운 승계

담임목사 위임 및 원로목사 추대식

2025. 7. 5 (토) 오후 2시 창신성결교회 3층 대예배실

보시는 날 / 7월 5일 (토) 오후 2시

하나님의 크신 은사가 임함이 증거되는 교회와 가정에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창신교회는 주님의 불 교회를 증성시키기 위하여 사역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 교회와 가정의 번영을 위하여 사역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때가 되었습니다.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신교회 장로 및 교인 양생

창신교회
우서울 영등포구 창신5길 22 ☎ 02) 765-6890 God Bless You

담임목사

이종원 목사

원로목사

석진성 목사